‘MB 정권 심판론’ VS ‘지역 일꾼론’

〈민주당〉 〈한나라당〉

민주, 거물급 지원에 상승세 ‘중부권 전승’ 정조준

한나라, 정몽준 대표 ‘올인’…5곳 중 3곳 승리 목표

■달아오르는 10·28 재보선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MB 정권 심판론’을 토대로 중부권 전승을 목표로 내건 반면, 한나라당은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며 5개 선거구 가운데 최소한 3곳 이상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은 수원 장안과 안산 상록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등 3개 지역구에서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중부권 전승을 기대하고 있다.

안산 상록을의 경우 김영환 전 과기부장관의 지지율이 공천 확정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소수야당의 지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임종인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도 급류를 타고 있어 분위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수원 장안도 이찬열 후보가 확실한 지역 연고를 바탕으로 토박이 유권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손학규 전 대표가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지역구를 누비고 다님에 따라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지역 출신의 정범구 후보의 인지도와 함께 정부의 세종시 원안 추진 논란을 둘러싼 비판적인 지역 여론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면서 민주당 바람이 불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밖에 민주당은 무소속 후보와의 단일화가 진행 중인 강릉과 여권 성향 후보들이 난립한 경남 양산에서도 ‘노무현 바람’이 분다면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일각에서는 어느 한 곳도 확실한 우세가 없는 상황에서 3승을 얘기하는 것은 너무 이른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도 8일 10월 국회의원 재선거 공천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중간 심판론’을 차단하면서 지역 숙원사업을 해결할 여권의 ‘지역 일꾼론’을 내세워 필승 의지를 다지고 있다.

비록 여당에는 불리한 재보선이지만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심리가 확산, 이명박 대통령 및 당 지지도가 동반상승하자 재선거가 치러지는 5개 지역 중 적어도 3곳 이상에서 승리를 거두지 않겠느냐는 희망 섞인 관측도 나온다.

일단 한나라당은 경남 양산과 강원 강릉은 전통적으로 여권 지지 성향을 보였다는 점에서 승리를 기대를 걸고 있다.

또, 수원 장안의 경우 박찬숙 후보가 17대 의원을 지낸 방송인 출신으로 인지도가 높아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안산 상록을은 송진섭 후보가 안산시장을 지낸 바 있어 지역 기반이 탄탄한데다 야당의 후보가 분열된 상태라는 점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충북 진천·음성·괴산·증평 역시 공천 후유증을 극복하고 야당과 1대 1 구도를 형성할 경우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다.

특히, 취임 이후 처음 선거를 맞는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모든 당력을 총동원, 이번 재보선에 ‘올인’한다는 방침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전남 물값 전국 3번째로 비싸

t당 762원…광주는 511원, 완도군 도내 최고

전남지역 수도요금이 전국 16개 시·도 중 세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남지역에서 물값이 가장 비싼 지역은 완도로, 곡성의 2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유정복 의원이 수자원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전남지역 수도요금은 1t당 762.8원으로 전북 793.8원, 울산 774.3원에 이어 전국 세번째로 비쌌다. 다음으로 충남 713.8원, 강원 712.7원, 경남 710.6원, 충북 670.3원 순이었다.

광주는 511.7원으로 대전 484.8원, 대구 495.1원에 이어 저렴했다.

전남지역에서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곳은 완도(942.1원)로 가장 저렴한 곡성(451.2원)의 2.1배에 달했다. 다음으로 여수(940.1원), 영광(904.2원), 해남(901.7원), 고흥(883.7), 영암(862.0) 등의 순이었다.

전국적으로는 강원 정선이 1천426.2원으로 가장 비싸, 전국 평균 604원의 2배가 넘었으며, 가장 저렴한 청송(357원)의 4배 수준이었다.

1t당 생산원가는 광주 602.6원, 전남 960.3원으로, 수도요금 대비 생산원가 현실화율은 광주 84.9%, 전남 79.4%에 그쳤다. 1인당 1일 가정용수 사용량은 광주가 174.6ℓ, 전남 144.7ℓ 였다.

이같이 지역별로 수도요금이 차이가 나는 것은 수자원공사가 각 지자체에 제공하는 원수나 정수의 가격은 전국적으로 같지만 지자체의 자체 취수원이나 상수원 시설 여부, 관로의 설치 주체 등에 따라 수도요금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유정복 의원은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수도요금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다”며 “생산원가가 높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수자원공사가 이익을 환원해 수도요금 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수자원공사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광역상수도사업으로 4천4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연평균 441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남겼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태풍 멜로르 日 강타 18호 태풍 멜로르가 8일 새벽 일본 열도에 상륙한 가운데 한 차량이 강풍을 동반한 파도가 몰아치는 시즈오카시 해안을 위험스럽게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용어, 모두 한글로”

박준영 전남지사 “문화운동 펼치자”

박준영 전남지사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각종 행정용어들을 한글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8일 도청에서 사업소·출연기관 관계가 간담회를 갖고 “각종 행정용어에 국적 불명의 외국어가 난무하는 것은 문화적 종속주의 산물”이라며 “전남도가 앞장서 한글학회 등의 자문을 얻어 모든 용어를 한글로 바꾸는 등 문화운동을 벌여나가자”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요즘 기업과 방송 등에서 각종 명칭과 용어를 영어식으로 표기하면서 국적불명의 외국어가 확산하고 있다”며 “대부분 영어도 아니고 불어도 아니며 한글은 더더욱 아니어서 우리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박 지사는 또 “숲 해설가나 관광해설가 등 도내에서 활동하는 해설가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많은 내용을 두서없이 늘어놓아 관광객들에게 혼란만 주는 경우가 많다”며 “각 관광지별 특성을 최대한 부각시킬 수 있는 한두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해설 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와 함께 “도내 축산농가 질병 검사시 검사만 할 게 아니라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밀식이 이뤄지고 있는지, 축사에 햇빛이 들어오는지 등도 면밀히 살펴 친환경 축산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자활 성공 부랑인 “광주, 1명도 없어”

전남은 621명중 3명 성공

광주 지역에서 최근 2년 동안 직업자활훈련을 통해 사회에 복귀한 부랑인이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8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 2008년 전국 부랑인 노숙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부랑인은 일정한 주거와 생업수단 없이 상당 기간 거리에서 배회·생활하거나 부랑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18세 이상인 자다.

조사 결과 2008년 전국 부랑인 7천532명 가운데 72명(0.9%)만이 자활에 성공한 가운데 광주시는 인천, 경북 등과 함께 2007, 2008년 2년 동안 단 한 명의 자활성공자를 배출하지 못했다. 전남지역 부랑인은 2008년 621명이었으며, 이 가운데 3명만이 자활에 성공했다.

지난 2007년 125명이었던 광주 지역 부랑인은 2008년 15.2%인 144명으로 증가했으며, 부랑인이 증가한 5개 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광주지역 노숙인은 28명이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보수’ 지만원, ‘진보’ 진중권에 졌다

‘문근영 색깔론’ 관련 손배소

보수논객 지만원씨가 진보논객 진중권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서기호 판사는 8일 지씨가 문근영씨의 기부행위에 관한 글을 올린 자신을 비난한 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씨의 발언이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일부 표현에서 지씨가 주관적으로 인격모독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진씨 발언의 경위 등을 감안할 때 풍자와 해학의 측면이 있고 지씨 스스로 감수해야 할 정도의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씨의 글은 ‘문근영씨가 좌익사상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란 취지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문근영씨가 복지단체에 익명으로 8억5천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언론은 인터넷을 통해 ‘문근영의 외할아버지가 빨치산으로 30년 이상 옥고를 치렀다. 문근영은 마음도 착한데 집안도 좋다’는 내용의 기사를 올렸다. /연합뉴스

李대통령-하토야마 오늘 정상회담

‘그랜드 바겐’ 논의…내일 中서 한·중·일 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에서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간 협력증진 방안과 북핵문제 등 현안을 논의한다.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은 이번이 처음으로, 특히 지난달 취임 이후 양자 외교 차원의 첫 외국 방문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과의 회담은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가진 첫 회담에 이어 두 번째다.

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근 중대전환기를 맞고 있는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방미기간 국제사회에 제안한 ‘북핵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일본 정부의 협력을 당부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정상회담 직후 중국 베이징으로 이동, 오는 10일 원자바오 총리와 한·중·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번 회담에서 3국 정상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비롯해 경제위기의 완전한 극복을 위한 공조 방안과 금융협력, 핵 비확산, 녹색기술 협력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또 이와 별도로 원자바오 총리와 양자회담을 갖고 이달초 원 총리의 방북 결과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뒤 6자회담 재개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